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젊은이사랑방 공동체생활이 16일(금) ~ 18일(일) 사랑방공동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꾸러기학교 동문회가 17일(토)에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 어린이·푸른꿈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3일(금) ~ 25일(일)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졸업여행 중에 있는 어린이학교 6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베다니하늘주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전향옥 집사 (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3 호

2026년 1월 1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몇 해 전 헌책방에 들렀다가 구입한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라는 책을 책장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행 중에 짐이 될 것을 알면서도 꽤 두꺼운 이 책을 구입했던 이유는 바로 뒤표지에 쓰여 있는 이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15살부터 거리에서 생활하다 하버드에 입학한 한 소녀의 감동 실화” 소설이 아닌 실화라는 책 소개에 마음이 움직여 책을 구입했고, 두꺼운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의 주인공. ‘리즈 머리’의 이야기를 나누자면 그녀는 뉴욕 브롱크스 빈민가에서 마약 중독자인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집에는 늘 굶주림과 추위가 있었고, 결국 15살에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리즈는 대안학교를 만났고, 4년의 고등과정을 2년 만에 마친 뒤 [뉴욕 타임즈] 장학생으로 하버드에 입학하게 됩니다.

리즈의 삶은 고통과 비참함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몰래 재워주던 친구들, 음식을 나누어 주던 기관, 리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들, 그리고 어린 시절 마약에 절어 있을 때조차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엄마와 늘 도서관을 데려가주던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리즈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리즈는 사랑받았기에 견딜 수 있었고, 다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즈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길거리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처럼 그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겠죠.

사람. 그리고 사랑이 어찌면 우리 인생에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벧전 4:8)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줍니다.

리즈가 노숙자이던, 마약 중독자들의 딸이건, 에이즈 환자의 딸이건 상관없이 그 많은 허물을 다 덮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랬고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그랬고 리즈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돈이 없어 리즈를 도울 수 없으나 빨래는 해줄 수 있다면서 노숙하는 리즈의 옷을 빨아 준 가난한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랑조차도 이토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위대한 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은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책에는 신앙의 이야기가 없지만, 저는 리즈를 도운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신앙인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리즈에게 손을 내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사랑의 멸종을 노래하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나의 도움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잠자기 쉽지 않네

한주간의 말씀

“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

< 시편 63편 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12, 408 / 455

기도 :

성경 : 사무엘상 30장

제목 :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지시다

1. 내용: 다윗이 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What)

<문단구분>

1~6절 다윗이 당한 곤경

7~20절 다윗이 아말렉을 치다

2. 의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Why)

1) 낙심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다

2) 적극적인 상황대처를 하다.

3)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3. 적용: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 (How)

1) 올바른 삶의 배경을 선택하자.

2)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자.

보통 사람들은 몇 시에 일어날까?

다들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나는 대략 빠르면 8시 늦으면 10시에 일어난다.

6년 전 회사에서 퇴직하고 처음 한동안은 아침 6시에 꼭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하며 잠자는 시간과 무관하게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췄다. 퇴직하고 나태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늦게 일어나면 마치 무슨 죄라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다. 그때는 그랬다.

아침 10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새벽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창피하기도 한 것 같아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려고 시계 알람을 저녁 잠자는 시간에 맞춰놓고 생활해 보기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어느 날인가 깨달음이 왔다. 아~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일찍 자는 것이 더 어렵구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마음을 내려놓고 원하는 시간에 바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막상 잠잘 시간이 되면, 그날 못했던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무엇이 아쉬운지 책도 뒤적이고, 영화도 보고,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금세 새벽 2시가 된다.

나는 하루 8시간은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취침하면 오전 10시까지 자야 한다. 사실 새벽 2시에 자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내일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집사람이 너무 늦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잠자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이상하다, 예전에는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습관일까? 욕심일까?

세상일이 그런 것일까?

시작하는 것보다는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어렵고, 새로운 것을 갖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일까?

요즘 매일 반복되는 잠자리와의 줄다리기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갑오(甲午)년생으로 갑오년 말띠해를 맞이하면서 삶을 잘 산다는 것과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게 된다.

주님께서 나에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새싹사랑방 서병욱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이사야 9 : 1-3 인도자
1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293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시 편 63 : 1-11 설교자
434 비움사랑방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91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기환 차현주 / 봉헌위원 : 전향옥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만족함을 주셔서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유다광야로 도피. 시편 6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쳐서 지은 시편입니다. 이 일은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다윗의 명성은 예전만 같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윗의 찬양.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쁨을 선포.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 넘는 기쁨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참 기쁨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전향옥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어린이학교 >

어린이학교 6학년은 졸업여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운입니다. 아마 이 글을 내일은 오후에 코타키나발루로 이동합니다. 이 글을 보셔서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일단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싱가포르의 화장실이 좋아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게 많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겁나 빨라서 좋지만 대신, 음... 다른 건 느려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태'는 정말 맛있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놀 곳도 많고 사진 찍을 데도 많아서 최고였습니다. 다른 애들을 보니 제 가이드 날이 남아서 앞으로 힘들 예정이에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졸업여행을 하고 있는 어린이학교 6학년 박윤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는 싱가포르 동물원인데요. 정말 다양한 동물들도 많고 신기한 환경입니다. 어제까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갔고, 루지도 타고, 하지레인이라는 예쁜 그림들이 있는 골목길 같은 곳도 구경하고, 멀라이언공원에도 가는 등 많은 곳을 갔습니다. 또 '바쿠테'라는 갈비탕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졸업여행이 처음이어서 다들 많이 티격태격 부딪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잘 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윤아

이번 졸업여행은 싱가포르와 코타키나발루를 방문하는데, 지금은 싱가포르 5일차이다. 사실 오기 전에는 즐겁고 신났는데 막상 13일 다가오니 즐겁기보다는 좀 두려웠다. 이유는 내가 13일 가이드여서 비행기 타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비행기를 못 탈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타서 즐거웠

고 뿌듯했다. 앞으로 많은 곳을 더 갈 텐데 잘 다니다가 가면 좋겠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공동체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남은 여행 잘 보내고 가겠습니다! / 이하은

안녕하세요. 저는 곧 어린이학교를 졸업하는 정소니입니다. 졸업여행으로 싱가포르를 왔는데 오면서 기내식도 먹고 처음으로 난기류도 만났어요.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으니 도착해 있었어요. 입국심사를 겨우겨우 마치고 MRT를 타고서 숙소로 도착했어요. 숙소에서 짐을 놓고 포트캐닝공원도 가고 티옹바루 베이커리에서 음료도 마시고 플라이어 구경도 하고 멀라이언공원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세 번째 날은 제가 가이드를 하는 날이었는데 국립미술관과 하지레인, 슈퍼트리쇼를 갔는데 순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센토사에 가서 루지도 타고, 유니버설스튜디오도 갔어요. 거기서 쿠키몬스터인형을 사고, 전선희 선생님이 엘모 인형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차이나타운에서 구경도 했어요! 오늘 다섯 번째 날인데 동물원에 와서 KFC에서 치킨도 먹고 여러 동물들을 봤어요. 그리고 내일은 코타키나발루로 갈 거예요. 졸업여행을 하면서 많이 힘들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좋은 경험인 거 같아요. 특히 새우국수가 여행하면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어요. 반대로 카야토스트는 너무 달아서 별로였어요. 졸업여행은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 정소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용 입니다. 어린이학교 졸업여행 소감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여행을 와서 좋고 안 먹어본 음식을 먹고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외국 분과 대화를 해보고 좋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음식 중에 새우국수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힘든 점은 더운 것과 대화가 약간 안 되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도 동물원도 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멋진 풍경도 봐서 좋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습니다. 아직 코타키나발루가 남았습니다. 저희 잘 놀고 갈게요. 안전하게 지내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최진용

홀로서기

진용이가 멋쟁이에 입학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민용이가 심심해서 어떡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저부터도 형이 없으면 어쩌나 싶긴 합니다.

지난 주 화요일 진용이가 열흘의 일정으로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형을 배웅하고 들어와서부터 민용이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우선 저한테 말을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제껏 형이랑 하던 수다가 이제 저에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즐겨하는 게임과 티비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못 알아듣는 내용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혼자 꾸러기학교 동문회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형이 준비하자고 할 때까지 꼼짝 않고 놀다가 겨우겨우 준비해서 잔소리 폭탄이 쏟아지고는 했는데... 믿고 따르는 형이 없다보니 1시간 전부터 옷을 갈아입고, 정확히 시간을 맞춰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민용이가 나간 후 저와 남편이 웬일이지? 하며 의아해 했습니다.

둘째는 평소에도 형을 잘 따릅니다. 형이 보자고 하는 티비채널, 형이 하자고 하는 게임, 형이 먹자고 하는 음식, 본인이 좋아하는 건지 형이 좋아서 좋은 건지 마냥 좋아하고 따르는데 헛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형이 없을 때 민용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민용이는 어디 가고 싶어? 뭐 좋아해? 물어보는데, 민용이는 '나는 내가 어디 가자고 해서 가는 게 부담스러워' 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을 여기저기 검색하며 겨우 목적지를 정하고 잠이 듭니다.

진용이가 멋쟁이학교에 가면 이제 민용이가 진학하기까지 2년은 서로 따로 따로 생활하게 되겠죠. 그 2년 동안 민용이가 좋아하는 거, 해보고 싶은 거 형 없이 마음껏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515장, 438장

성 경 : 사무엘기상 28장 3-7절

말 씬 : 주님과 고리가 끊어진 사람의 말로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란 시위 유혈사태>

최근 이란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란 인터내셔널 편집위원회는 최소 12,000여명이 1월 8-9일 사이에 사망했다는 성명 보도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주시길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1) 제주 이주민 사역을 위해

2) 총회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 철거와 증축을 위해

2) 어린이학교 졸업여행을 위해

3) 토요일 꾸러기 동문회와 공동체생활 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체학교들이 방학이어서 고요할 것 같지만 일상은 계속되고,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이어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육관 2층 해체작업과 컨테이너 이동 작업으로 힘을 많이 써야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학교가 화요일에 졸업여행을 떠나서 기도자리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꾸러기학교 동문회와 젊은이사랑방 겨울 공동체생활로 오래간만에 시끌벅적 활기가 넘쳤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